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마르 10, 35-45)

유스하이어콜링컨퍼런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를 개최한다.

미주 한인 차세대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열리는 이 행사는 12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포모나에 있는 Sheraton Fairplex Hotel & Conference Center(601 W McKinley Ave, Pomona, CA 91768)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찬양과 말씀, 선택 강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생의 행로를 제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비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전문 상담가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석 대상은 6학년에서 12학년까지며 행사는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할 경우 300달러,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330달러,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는 360달러다.

문의: (818) 314-6643, (213) 247-7086
youthhighercalling.org

월례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이하 연합회)가 4일(토)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11월 월례조찬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는 것에 주목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고 역설했다.

한편 연합회는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관련기사 본보 1496호 50쪽 '선교사 자녀 장학생 선발'). 지원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합회 홈페이지(www.ockca.org)'> 연합회 소식>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욕과 권세욕이 강하게 발동한다고 합니다. 즉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보다 위에 서고 싶고 남을 부리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남 앞에 으시대며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공방화를 내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을 섬겨야 할까요?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봉사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며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삶과 피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봉사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하며 간청하기 전에 불쌍한 내 이웃 내 형제에게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봉사하신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높은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르 10, 44-45)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표준관 신부-

어느 단체에서나 보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조그마한 직책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하찮은 명예직이라도 하나 가져야만 흐뭇해하고, 남들 앞에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타나곤 합니다. 조그마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짓밟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려울 줄게 백성의 은인으로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남으로부터 섬김만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싫어하며, 위대한 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데, 수레바퀴들이 삐걱삐걱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러자 소들은 수레바퀴 쪽을 바라보면서 "모두들 삐걱거리는 소리를 가만 멈췄으면 좋겠어! 무거운 짐은 내가 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 없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공연히 제가 피로하고 땀 흘리는 체하는 사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둔하고 말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려는 사람을 꾸짖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혼자 잘난 체하며, 수고하지 않고 큰 소리만 치는 자는 높은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이런 자들이 온갖 권모술수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려를 받기만 하므로 자신이 높은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비뚤어진 것이며, 역사의 심판관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높은 사람은 누구 일까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은 바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